

「캐드먼의 찬미가」 원저자 연구: 고대영시 시작법과 신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이동일 (한국외대)

I. 들어가는 글

최초의 고대영시 중 하나인 「캐드먼의 찬미가」(“Caedmon’s Hymn”)는 7세기 노섬버리아(Northumbria)의 목동 출신인 캐드먼의 작품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비드가 전하는 캐드먼에 관한 일화에 등장하는 캐드먼의 찬미가는 전통적 고대영시 시작술과 거리가 먼 라틴어 석의(釋義) 형태로 전해질 뿐 어떠한 운율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통적 고대영시 작시법에 준하여 전해지는 「캐드먼의 찬미가」는 비드가 전하는 캐드먼의 찬미가와 비교해 일부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캐드먼의 찬미가를 둘러싼 원저자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캐드먼의 찬미가」에 내재해 있는 정교한 신학적 해석을 둘러싼 어휘 조합은 찬

* 본 연구는 201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진행되었음.

미가의 범주를 넘어선 고차원적인 신학논의를 품고 있어 「캐드먼의 찬미가」의 출처에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업적을 노래한 캐드먼의 찬미가의 실제 내용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또한 캐드먼이 고대영시 시작법과 당대의 신학적 논의의 영향 하에 있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캐드먼의 찬미가」의 원저자를 규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캐드먼의 찬미가」에 엿 보이는 고대영시 작시법과 신학적 해석을 면밀히 검토하며 동시에 캐드먼과 비드의 지적, 학문적 배경, 또한 그들이 활동했던 노섬버리아의 종교 및 학문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찬미가에 관한 출처 및 원작자에 관한 고찰을 시도하겠다.

이 과정에서 비드의 라틴어 석의와, 어휘, 운율, 신학적 해석을 고려한 시대별 고대영시 판본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원작자에 관한 고증학적 면모를 살펴 보겠다.

II. 본론

II. i. 고대영시 작시술과 어거스틴의 시이론

최초의 고대 영시에 속하는 「캐드먼의 찬미가」¹⁾는 시어의 선택 및 배열에 있어 초기 교부신학자들이 성경해석을 위해 적용한 어휘분석이론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어거스틴(Augustine, 354-430)은 그의 『기독교론』(*De Doctrina Christiana*)에서 성경의 글과 세속적인 이교도의 글에 대한 구분을 글자와 의미와의 상관관계에서 출발한다. 과장된 웅변이라고 칭해지는 이교도 글은 표현의 기교에만 치중해 있기 때문에 영적 진리를 포함하지 않은 공허한 빈껍데기에 불과하고, 반면 견실한 웅변인 성경은 언어의 외형적인 형식에 급급하지

1) 여기서 논의되는 「캐드먼의 찬미가」는 비드가 기록한 라틴어 석의 형태의 찬미가가 아닌 8세기 노섬버리안 판본을 지칭한다.

않고 참된 영적진리를 감동적인 확신으로 전달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문체의 매력은 인간에게 그 신성의 진실한 의미들을 마음속에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부수적인 중요성 밖에 지니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이러한 수사학적 문체의 효용을 기독교 문학과 연관시켜 나름대로의 가치를 부여한다. 비유, 상징 등을 통하여 의미의 애매모호함을 품고 있는 수사학적 문체는 기독교 교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유효한 방법이고, 이로 인하여 성경 문학의 심미적 즐거움은 한층 고조된다고 어거스틴은 주장한다. 이어서 어거스틴은 꺾테기와 씨의 은유적 표현을 도입하여 그의 시 이론의 핵심이 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문자 뒤에 숨어있는 의미의 구별을 시도한다. 진실로 아름다운 것에 대한 이해는 꺾테기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꺾테기를 깨는 작업 후 씨에 접근했을 때 완전해진다는 것이다(Milton 75).

어거스틴의 심미적 이론을 이루는 신학적 배경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 즉 ‘글자(율법)는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은 생명을 부여한다’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 사도 바울에 의해 언명된 이 기조는 성경문학 이론의 핵심이 되며 어거스틴 이후의 성경 주석가들에 의해 꾸준히 발전하게 된다. 어거스틴에 의해 제시된 외형과 속 의미 사이의 기능적인 관계는 세빌의 이스도(Isidore of Seville)에 의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스도에 의하면 시인의 기능은 언어의 꾸밈에 있으며, 동시에 어떤 형태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에두른표현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영적 진실을 표현하는데 있다는 것이다(180). 이러한 비유적 해석은 버질(Vergil of Toulouse)에 의해 ‘지적이고 심미적이며 동시에 신비적인’ 단계로까지 발전한다(Tardi 88).

어거스틴에 의해 주창된 외형과 내형(속의미)의 기능적인 관계는 『캐드먼의 찬미가』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나아가 두운 작시법에 의한 독특한 운율이 시의 외형상의 큰 틀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 ii. 고대영시 작시법과 「캐드먼의 찬미가」

비드가 라틴어 석의로 전하는 캐드먼의 찬미가와 달리 고대영어로 전해지는 「캐드먼의 찬미가」는 고대영시의 전형적인 시작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모어 수서본(Moore MS)에 들어 있는 노섬버리아 고대영어로 전해지는 노섬버리아 형태의 「캐드먼의 찬미가」는 두운 및 변어의 사용에 있어 그 훌륭한 예가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의 수호자를 찬양하자/ 창조주의 무한한 힘을/
 그분 의중의 지혜로우심을/ 영광의 아버지, 그 분의 행하신 일들을 드높이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시작을 놓으셨노라(혹은 **모든 경이로움의 시작을
 놓으셨노라**)/ 신성한 창조주인 그 분은/ 사람의 자손들을 위해/ 지붕삼아 천궁
 (하늘)을 처음 지으시고/ 영원하신 인류의 수호자이신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
 해 땅을 지으셨노라./ 전지전능하신 통치자.²⁾

- 1) Nu scylun hergan hefaenricaes Uard,
- 2) Metudaes maecti end his modgidanc,
- 3) uerc Uuldurfadur sue he uundra gihuaes,
- 4) eci Dryctin or astelidae.
- 5) He aerist scop aelda barnum
- 6) heben til hrofe, haleg Scepen.
- 7) Tha middungeard moncynnaes Uard,
- 8) eci Dryctin, aefter fiadae
- 9) firum foldu, Frea allmectig.

(from the Moore MS: in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MS.kk.5.16)

고대 영시에서는 중간휴지(caesura)를 중심으로 두 개의 반행(half-line)이 연결되어 한 행을 이룬다. 후반부 반행(line-b)에 있는 강음절(arsis)의 자음이 전반부 강음절에서 반복되며, 모음인 경우 비슷한 다른 음가의 모음으로써 전반부 강

2) 고대영어의 현대영어와 우리말 번역은 연구자가 시도한 것임.

음절에 반복되어지는 것을 두운(alliteration 혹은 initial rime)이라 한다. 모두 9행으로 이루어진 『캐드먼의 찬미가』에서는 모든 행이 예외 없이 이 규칙에 의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딕체 참조). 『캐드먼의 찬미가』에서 발견되는 엄격한 두운의 적용은 두운 작시법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즉, 초기 고대 영시 → 중기 → 후기 고대영시) 점진적 과정을 거쳐 일정한 틀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초기 고대 영시에서부터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캐드먼의 찬미가』 이전에는 시형(詩形)을 제대로 갖춘 작품이 거의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고대영어(Old English)의 뿌리인 고대 게르만 어족의 시작(詩作)에 크게 영향 받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두운 작시법은 고대 영시의 외형(운율)을 구성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는데 3182행에 달하는 고대 서사시 『베오울프』(Beowulf)에서도 몇 개의 음절과다(hyper-metric) 행을 제외한 모든 시행이 엄격한 두운에 맞춰 구성되어 있다. 두운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 영시의 운율은 앵글로 색슨어를 포함한 게르만어족에서 흔히 사용되는 시작(詩作)이며 청중들의 청각에 호소하는 낭송시의 주된 구성요인이 되어 왔다.³⁾ 시의 운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거스틴이 주창한 외형의 의미와 차이가 있을 것 같으나 바로 이 두운에 의해 어휘의 선택 및 배열(외형)이 절대적으로 좌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행에서 볼 수 있듯이 후반부 반행의 강음절을 포함하는 단어 *hefaenricaes*에서 두운의 요소가 되는 ‘h’자음이 전반부 반행에서 형성되어질 두운을 맞추기 위해 강음절을 갖는 *hergan*에서 반복되어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두운 작시법은 어휘의 선택 및 배열과 직접적 연관을 갖게 되므로 어거스틴이 ‘시이론’에서 언급한 외형의 의미와 맥을 같이함을 알 수 있다. 2행-3행의 반행에서 보여 지는 두운에 의한 어휘의 선택 및 배열은 어거스틴이 말한 외형과 속 의미(신학적 교리)의 기능적 관계를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하나님에

3) 고대영시의 운율을 결정짓는 두운은 고대 영문학 시기에 시작법(詩作法)의 정해진 틀로 사용된다. 대구(對句)와 함께 end-rhyme이 영시의 특징이 되는 중세영문학시기에는 두운의 사용이 두드러지지 않으나 14세기에 다시 부활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예,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등)

대한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는 이 부분의 핵심어이자 기능어들은 다음과 같다.

- (1) *Metudaes maecti* “Might of God” (2-a),
- (2) *his modgidanch* “His Wisdom” (2-b),
- (3) *uerc Uuldurfadur* “Work of the Glory-Father” (3-a)

예외 없이 다른 반행과 두운으로 연결되는 이 세 어군은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을 지칭하며 동시에 다른 세 속성을 암시하는 기능어 구실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의 속 의미는 엘프리즈(Aelfric)를 비롯한 초기 교부 신학자들의 일관된 신학 논리인 삼위일체설(Trinitarianism)과 일맥상통한 면을 보이고 있다. 즉 “Might of God”에서는 전능하신 힘의 주재자로서의 성부(Father)를, “His Wisdom”에서는 지혜의 발현자로서의 성자(Son)를, “Work of the Glory-Father”에서는 작업의 완성자로서의 성신(Holy Spirit)을 나타내고 있다. 두운이라는 외형의 제약 속에 선택되어지고 배열된 이 세 형용어구의 조합은 최상의 언어가 최상의 위치에 배열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적 조화와 질서에 대응(對應)한다는 어거스틴의 시 이론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Chapman 127).

『캐드먼의 찬미가』에서는 찬양의 대상이나 창조의 주체자인 하나님이 모든 행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인칭대명사인 *he*를 제외하고도 7회에 걸쳐 반복되고 있다. 이 중 6개의 다른 어휘가 같은 대상인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다.

- (1) *Uard* “Ward” (1-b) (2) *Metudae* “God, Measurer” (2-a)
- (3) *-fadur* “Father” (3-a) (4) *Dryctin* “Lord”(4-a)
- (5) *Scepen* “Creator” (6-b) (6) *Frea* “Ruler” (9-b)

하나님의 별칭으로 쓰여진 변어(variation)에 대해 로빈슨(F. C. Robinson)은 한 문장 안에서 동일한 지시대상을 공유하고 있는 병행어휘(parallel words)라고 정의하고 있다(129). 또한 로빈슨은 변어의 개념을 동격(appositive)과 동일시하며

명사나 명사 상당어(대용어)들이 지칭하는 단어와 이웃할 수도 있고 그들 단어들 사이에 간격을 두고 배열되어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Robinson 129) 이러한 동격의 사용은 후기 고대영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매우 보편적인 시작(詩作)으로서, 클레버(Frederick Klaeber) 같은 학자는 ‘고대영시 스타일의 정수’를 보여주는 요소로 평하고 있다(Klaeber 273) 두운작시법에서와 같이 후기 고대영시를 특징짓는 변어의 사용이 초기 고대 영시에서도 두드러지게 사용됐다는 것은 시형의 발달에 있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일정한 틀이 시인에 의해 의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II. iii 신학적 해석과 『캐드먼의 찬미가』

어거스틴에 의한 시작의 기본 목적은 외형(글자)과 속 의미의 기능적 관계에서 영적 진리의 발견에 있으며 여기서 얻어지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심미적 기쁨으로 간주되어진다. 이러한 영적 진리(혹은 성경의 교리) 및 심미적 기쁨을 토대로 한 시작(詩作)의 목적이 『캐드먼의 찬미가』에서는 4행부터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4) *eci Dryctin, or astelidae*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시작을 놓으셨노라

이 부분에서 언급되는 창조는 초기 교부신학자들의 견해인 두 개의 창조 즉, 유, 무형의 창조 의미와 일치한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두 하늘(the heavens)에 관한 신학적 교리가 정교한 어휘 선택과 배열에 의해 명확히 제시되고 있어 영적 진리라는 속 의미를 포함하는 어거스틴의 시이론을 반영하는 구절이다(Warner 157).

이 행의 정확한 의미론적 해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始作), 또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 (*or*)을 놓으셨다는 것이다. ‘시작’을 의미하는 고대 영어는 *or* 인데, 보스워스(Bosworth)와 톨러(Toller)의 고대영어 사전⁴⁾에 의하면 ‘시작(beginning), 처음(first), 기원

(origin), 앞부분(front), 선봉(vanguard), 무기의 끝(a point of weapon)' 등의 의미를 지닌다.

- (1) *Gif thu his ne meht or areccan*
[Can not tell even the beginning of your dream (*Daniel* 133)]
- (2) *Waes on ore heard handplega*
[There was a hard hand-fighting in the vanguard (*Exodus* 326)]
- (3) *Secgan or and ende*
[to tell from first to last (*Andreas* 649)]
- (4) *Wordes ord breosthord thurhbraec*
[Word's point broke through breast-hoard (*Beowulf* 2791b-92a)]
- (5) *orde geraehte*
[pierced with spear-point (*Beowulf* 556-b)]

『캐드먼의 찬미가』에서와 달리 (1)-(5)의 예문에 쓰인 *or* 혹은 *ord*는 무엇(총체)에 대한 부분의 속성으로써 쓰여짐을 알 수 있다. 즉 예문(1)에서는 꿈(총체)의 부분으로서, (2)에서는 전투 진열의 선두라는 부분으로서 (3)에서는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시작 부분으로서 (4)에서는 영웅적인 말의 시작으로서 (5)에서는 무기(칼)의 끝부분의 의미로써 각각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후기 고대 영시에서는 *or* (*ord*) ‘시작’의 의미가 부분과 총체라는 상관관계에서 쓰여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총체(꿈, 전투 진열, 이야기, 말, 무기)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초’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빠레시트’로써 ‘꼭대기, 정점, 머리, 기원’ 등의 의미를 지닌다. ‘머리’의 의미를 적용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머리, 즉 하나님의 의중이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개념이 형성되는 곳’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신학자들의 신학적 교리를 종합했을 때 1장 1-2절의 창조는 시간 밖의 창조이며 시간에 선행하는 영적인 창조(혹은 창조주의 창조에 관한 개념의 형성?)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즉 가시적 창

4) 보스워스와 톨러의 사전은 이하 **BT**로 명기한다.

조 이전에 행해지는 창조로써 후에 이루어지는 가시적 혹은 물질적 창조의 시발점이 되거나 근거내지 바탕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캐드먼의 찬미가』에서는 무엇에 관한 ‘시작’(始作)인지를 명료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시작’에 관한 구체적 의미의 해석이 어렵게 되어 있다. 앞서서 4행의 ‘시작’은 5행부터 계속되는 또 다른 창조, 즉 유형의 창조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었는데 이는 전체 문맥상의 해석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5행에서 계속되는 구체적인 창조의 행위에 대해 시인은 ‘처음(aerist, 5-a), 그리고(Tha, 7-a), 그런 다음(aefter, 8-a)’와 같은 세 부사어를 배열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창조, 즉 유형의 가시적 창조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가시적 세계에서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의 흐름을 대변해주는 ‘처음(first)-그리고(then)-그런 다음(afterwards)’의 배열은 이에 부속되는 구체적 창조의 행위에 의해 시각적 이미지가 증대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5행에서 하나님은 처음 지었다는 ‘하늘’의 속성은 ‘지붕’이라는 강한 시각적 이미지를 품고 있는 어휘에 의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는 계속되는 창조행위에서 더욱 구체화되어진다. ‘그리고(Then) 인간들을 위해 땅(지상)을 지으셨노라’(8-9행), 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거하는 땅(middle - earth), 즉 가시적인 형태의 창조물(지구)을 연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의 중첩은 6행에서 언급되는 ‘하늘’이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으로 구체화되면서 동시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창조의 행위로써 시인은 *scop* (만들었다, 창조했다)이라는 어휘를 이용하여 4행에서 행한 창조주의 또 다른 행위인 *astelidae* (시작을 놓으셨다)와 확연히 다른 창조행위를 암시하고 있다. 이는 피조물의 속성에 따른 창조주의 구별되는 창조행위를 의식하고 있는 시인의 의도적이고 고차원적인 어휘 선택의 결과로 간주되어진다. 즉, 5행에서 이루어진 창조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혹은 물질적인 창조라면 4행은 그와 반대인 ‘시간 밖’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창조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어거스틴은 태초에 영적인 창조와 물질적인 창조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주

장한다. 실제로 1장 1-2절에 언급되는 하늘과 땅은 형태가 없고 공허하기 때문에 오감에 의해 감지될 수 있는 가시적인 속성의 창조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창세기 1: 8)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형체가 있는 가시적인 땅의 창조는 1-2절이 아닌 2번째 날과 3번째 날에 하늘과 땅이 창조됨을 통해 알 수 있다. 성 베질(St. Basil, 329-379)에 의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의 의미는 시간 밖의 개념이며 이때 이루어진 창조는 무형의 창조로써 다음에 이루어지는 유형의 창조가 되는 토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시간 밖에서 행해지는 무형의 창조에 대한 성 베질의 견해는 그가 보여주고 있는 예문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마치 길의 **시발점**이 온전한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또한 집의 건축 초기 단계가 전체 집을 의미하지 않은 것처럼 시간의 **시작**이 아직 온전한 시간의 개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간의 일부라도 될 수 없는 것이다.

Just as (1) **the beginning** of the way is not the way, and (2) **the beginning** of a house is not yet the house, thus also (3) **the beginning of time** is not yet the fullness of time, nor even a small part of time. (Rousseau 207)

3번째 예문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시간 밖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 이전 혹은 시간 밖에서 행하는 창조 행위, 즉 모든 것의 ‘시작’을 ‘놓으셨다’는 해석의 적합성을 보충해주는 기독교의 전통적 교리관이라 할 수 있겠다.

『캐드먼의 찬미가』에서는 ‘시간 밖’에서 행해지는 창조의 개념을 정교한 언어의 선택과 배열에 의해 더욱 명확히 하고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4-a)의 구절에서 이러한 시인의 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 시간 밖에서 행해지는 창조의 주체는 당연히 시간을 초월한 상태 혹은 시간 밖에 존재하여야만 할 것이다. 4행 전반부에 나타난 *eci* (eternal, 영원한)는 ‘시간 밖’에서 존재하는 초월성을 지닌

창조주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시 시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선택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시의 핵심의미(속 의미)가 양분된 시간의 개념(시간 밖과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시간 밖’의 개념을 의미론적으로 입증해주는 *eci*와 *or*가 한 행에서 두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외형의 틀과 내형의 속 의미를 기능적으로 엮으려는 시인의 고차원적인 시작술로 간주되어 진다. 시인의 이러한 정교한 어휘조합은 태초의 시간과 관련된 전통적 신학적 교리와 일맥상통함을 보여준다. 태초에 진행된 창조와 시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신학자들은 태초에 시간의 흐름이 없었다는 것에 동의한다. 통상 시간의 개념은 낮과 밤의 분리에 의해 형성되는데 창세기 1장 1-2절의 ‘태초’에는 낮과 밤의 구별이 없게 된다. 고로 ‘태초’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낮과 밤의 구별은 1장 3절의 첫 번째 날에 언급 된다: 빛이 이 있으라하며 빛이 있고 빛이 어둠과 구별되고 빛을 낮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게 된다. 또한 시간은 ‘하늘 혹은 창공’의 움직임의 양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늘’은 두 번째 날에 창조 된다. 고로 ‘태초’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더 엄격히 말하며 우리가 감지하는 시간 즉, 낮과 밤의 분리에 의한 즉 해와 달의 구분으로 인한 시간의 흐름은 ‘해’와 ‘달’이 창조되는 4번째 날에 있게 된다.⁵⁾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고대영어 『캐드먼의 찬미가』는 어거스틴을 비롯한 초기 교부 신학자들의 성경해석에서 강조되는 외형 (언어의 선택 및 배치)과 내형

5) 시간 밖의 창조를 둘러싼 논의는 중세에도 지속되며 아퀴나스에 의해 더욱 정교한 해석의 틀을 갖추게 된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AD 1225-74)는 『신학대전 (*Summa Theologica*)』에서 태초에 창조된 것으로 천사의 속성(the angelic nature, 최고천(the empyrean heaven), 무형의 물질계(formless corporeal matter), 시간(time)의 4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 중 ‘천사의 속성’과 ‘최고천’은 본질적으로 ‘지속’의 속성과는 상관없이 없고 형태(form)에 앞서는 속성을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이 그들이 형태에 선행하므로 이들은 운동과 시간 이전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시간’(time)은 처음 두 개의 창조인 ‘천사의 속성’과 ‘최고천’에 포함될 수 없게 된다. 질료(matter)는 그의 온전한 형태를 갖추기 전까지 형체가 없는 상태인데 이와 같이 ‘시간’ 역시 온전한 형체(온전한 개념의 형성을 의미한 듯)를 갖추기 전까지 형체가 없는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길비(Gilby) 참조.

(속 의미 혹은 기독교적 교리)의 기능적 상관관계를 입증해 주는 구체적 예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전통이 초기 고대영시의 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캐드먼의 찬미가』를 고대영시의 형태로 전하는 필사자(혹은 캐드먼?)가 초기 기독교 글 문화의 전통에 정통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적용할 수 있는 4행 구절 “eci Dryctin, or astelidae”가 비드가 라틴어 석의로 전하는 캐드먼의 찬미가에는 빠져 있는데 이는 캐드먼이 불렀다는 최초의 찬미가의 원래 내용과 원저자에 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III. 최초의 찬미가와 캐드먼의 저자설

그렇다면 이러한 정교한 신학적 배경을 깔고 있는 고대영어로 씌여진 『캐드먼의 찬미가』가 실제로 일자무식의 목동인 캐드먼에 의해 작성되었을까? 또한 캐드먼의 일화와 함께 캐드먼이 읊었다는 찬미가를 석의 형태로 전하는 비드⁶⁾는 어떻게 최초의 찬미가를 접하게 되었을까? 마지막으로 캐드먼이 읊었다는 찬미가와 비드가 전하는 석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고대영어로 전해지는 찬미가 사이에는 어떤 의미 혹은 운율상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

비드⁷⁾는 『영국민의 교회사』(*Historia Ecclesiastica Gentis Anglorum*)⁷⁾에서

-
- 6) 비드사(師)(Reverend Bede, 673-735). 영국 고대왕조시대의 신학자, 역사가, 성직자, 문법학자. 어려서 웨어머쓰(Wearmouth)의 수도원장인 베네딕트 시스콕(Benedict Siscop)의 문하생으로 기독교에 입문한다. 이후 재로우(Jarrow) 수도원으로 옮겨 수도사로서 교리연구와 학문에 전념한다. 그의 글은 당시의 인문학 전통에 입각하여 신학, 문학, 자연사, 인문지리, 문법, 역사 등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담고 있으며 성직자다운 겸허한 필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의 대작인 『영국민의 교회사』는 731년에 완성된다. 이 무렵 비드사(師)는 거의 40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를 남기는데 대부분의 저서는 성경주석과 같은 교리연구를 다루고 있으나 자연과학에 관한 저서도 남긴다.
- 7) 『영국민의 교회사』. 731년에 비드사에 의해 라틴어로 완성되었으며 초기 영국의 교회,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을 다룬 통합 역사서의 성격을 지닌다. AD43에 시작된 로마 제국 율리우스 시저(Julius Caesar)의 침입으로부터 731년까지의 영국역사를 다루는데

캐드먼에 관한 일화를 전하고 있는데 그의 찬미가가 매우 기독교적인 전통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비드에 의하면 7세기에 영국의 동북부 노섬버리아 지역에 살았던 일자무식의 목동 캐드먼이 어느 날 꿈속에서 시작(詩作)에 관한 재능을 부여받고 성경의 천지 창조에 관한 찬미가를 읊었으며 후에 여사제 힐다(Hild)가 657년부터 680년 사이 수도원장으로 재임한 휘트비(Whitby) 수도원에 들어가 경건한 수도자로서 성경 속의 일화를 중심으로 한 많은 기독교 시를 남겼다는 것이다. 캐드먼은 매우 경건한 수도사였으며 배움에 열성적이었다고 전해진다. 병으로 죽게 되는데 죽은 해는 대략 670, 676, 혹은 680년으로 추정된다.

비드에 의해 알려진 캐드먼은 비록 처음에는 일자무식의 목동이었지만 나중에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원의 엄격한 규율을 좇아 체계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당시 7세기에 유행했던 성경해석, 성경 해석에 필요한 논리학, 수사학, 문법 그리고 초기 교부신학자들의 다양한 신학적 견해를 최소한 가까이 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캐드먼의 시작(詩作)에 관해 비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캐드먼은 들어서 배운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기억 속에 저장하고 청결한 동물 같이 되새김질하여 모든 것을 감미로운 선율로 바꾸어 놓았다.

Ond he eal, tha he in gehyrnesse geleornian meahte, mid hine gemyndgade; ond swa swa claene neten eodorcende in paet sweteste leoth gehwerfde. (Miller 346)

저자인 비드사는 플리니(Gaius Plinius Secundus, AD 23-79, 『자연사』(*Historia Naturalis*)의 저자)나 길다스(Gildas)와 같은 라틴 저술가의 저서에 영감을 받고 일부 내용을 참조한다. 기록의 근간이 되는 사료(史料)들의 일부가 자신의 연구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영국민의 교회사』의 라틴어 제목은 *Historia Ecclesiastica Gentis Anglorum*이며 9세기 때 서부 색슨의 알프레드(Alfred, AD 849-899)대왕에 의해 당시 모국어인 고대 영어로 번역된다.

비드가 언급한 ‘되새김질’이라는 의미의 고대 영어는 *edorcan* “to chew, ruminare” (BT)이며 이것은 문맥에 따라 ‘생각하다’ 또는 ‘심사숙고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는 일자무식의 목동이었던 캐드먼이 체계적인 성경학습을 통해 수도사로 변모하여 시작(詩作)과정에서 필요한 언어 선택에 있어 진지한 고뇌의 과정(아마도 퇴고의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비록 꿈속에서 읊었던 찬미가는 특별한 은사에 의한 수동적 작시의 결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수도원에 들어간 이후에 읊은 시들(주로 창세기와 성경의 일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은 즉흥시가 아닌 부단한 학습을 통해 터득한 성경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시작술의 결과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물론 캐드먼이 지닌 음악성 혹은 운율에 관한 천부적 재능은 입교 전이나 입교 후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기 597년에 어거스틴에 의해 영국 섬에 전파된 기독교는 채 100년이 안되어 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퍼지게 된다. 8세기에 이르자 노섬버리아는 ‘문예부흥기’(Northumbrian Golden Age)를 구가하게 되어 엘키운(Alcuin), 비드 같은 많은 수도사를 겸한 대학자(신학, 철학, 문법, 논리, 수사학 등)를 배출하게 되며 엘키운은 대륙의 샤를마르 대제의 궁중 고문으로 활약하게 된다. 6세기 대륙의 수도사들에 의해 전래된 기독교는 이제 8세기에 이르자 노섬버리아의 박식한 수도사들에 의해 역으로 대륙에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을 고려했을 때 휘트비 수도원에서 캐드먼에게 성경지식을 전한 수도사들은 매우 정교한 성경해석 방식(어휘 조합과 분석에 관한 지식)에 길들여져 있었을 것이며 이는 곧바로 캐드먼에게 직·간접의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스미스(A. H. Smith)는 캐드먼의 수도사로 활약한 시기가 힐다 수도원장의 재직 시기(657-680)와 같으므로 노섬버리아 지역은 기독교가 전래된 지 50-6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정교한 수준의 신학적, 학문적 배경 혹은 기독교 문학이 자리를 잡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mith 125). 하지만 캐드먼의 일화를 전하는 비드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7세기 중 후반의 학문적 수준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비드는 자신의 저서 끝 부분에서 자신의 입교와

학문적 배경 및 업적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는 주님의 도움과 함께 옛날 사람들의 글이나 과거 조상들의 전통 혹은 내 자신의 지식으로부터 얻은 것을 기초로 하였다..... 일곱 살이 되던 해, 가족들의 보살핌 덕분에 나는 덕망 깊은 대수도원장이신 베네딕트에게 보내져서 그 분으로부터, 그리고 그 후에는 체올프리드로부터 훈육을 받았다. 그리고 그 후 내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수도원에서 보내며 성서를 공부하고 이에 대하여 묵상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덕망 깊은 사제들이 성서에 관하여 쓴 책에서 발췌한 글들을 편집하여 책을 집필하였는데.

.....swa swa geo of manna gewritum oððe of ealdra gesegene oððe of minresylfre cyþepe ic gewitan mihte, mid Dryhtnes fultume gedyde... Mid þy ic wæs seofanwintre, þa wæs ic mid gimene minra maga seald to fedanne ond to lærenne þam arwyrþan abbude Benedicte ond Ceolferþe æfter þon. Ond siðþan ealle tid mines lifes on þæs ilcan mynstres eardunge ic wæs donde; ond ealle geornesse ic sealde to leornienne ond to smeagenne halige gewritu. ...minra freonda of geweorcum arwrōra fædera wrat ond sette, ge eac seilce to mægwilte andgites...(Miller 480)

비드가 언급한 ‘덕망 깊은 사제들이 성서에 관하여 쓴 책’은 대륙의 초기 교부 철학자를 지칭하기보다는 베네딕트와 같은 영국 섬 안에 있는 사제를 지칭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배 사제들의 활약 시기는 힐다 수도원장의 재직 시기 (657-680) 즉, 캐드먼이 입교하여 시작 활동을 한 시기와의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면 노샘버리아의 문예부흥기는 8세기에 정점에 이르지만 이미 7세기 중후반에서 상당한 학문적 토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노샘버리아의 문예부흥을 주도한 기독교 사제 및 수도사들이 이룩한 신학적, 학문적 업적이 성 어거스틴과 같은 대륙의 초기 교부신학자들의 신학적 토대 위에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비드의 기록에서도 입증 된다.

성 어거스틴의 작품에서 발견한 사도들과 관련한 모든 것을 순서에 따라 옮겨 적었다.

In apostol, swa hwilc swa in geweorcum Sce Augustines gemete, eal purh endebyrdnesse ic awrat.... (Miller 482)

이 부분은 비드를 비롯한 영국내 수도사 및 사제들이 대륙의 초기 교부 신학자들의 글을 많이 참조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신학, 역사, 자연사, 문법, 운율 등에 정통한 비드가 더욱이 그의 대부분 저서는 정교한 고증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캐드먼에 관한 기록은 상당히 신빙성을 지닌 자료에 근거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자신이 직접 목격했거나 혹은 캐드먼에 관한 일화를 직접 목격한 수도사로부터 직접 들었거나 휘트비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목격한 수도사들이 남긴 기록에 의존하여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 비드가 캐드먼이 수도한 수도원 명칭이며 현재의 휘트비로 간주되는 스트레네샬크(*Strenæshalc*)를 방문했는지는 기록상으로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영국민의 교회사』 집필 시기에 비드가 요크(York)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비드가 휘트비를 포함한 노샘버리아의 여러 수도원을 업무상 방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 곳의 수도사들이 비드의 수도원을 방문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비드가 캐드먼에 관한 이야기와 찬미가를 접했을 가능성이 크다(Plummer 405). 하지만 비드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비드가 자신의 수도원을 떠나 중무상 활발한 여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후 내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수도원에서 보내며 성서를 공부하고 이에 대하여 묵상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하지만 이러한 비드의 칩거 비슷한 수도사 생활이 당시의 수도원과 영국내 기독교 상황을 대변하지는 않고 있다. 비드의 『영국민의 교회사』를 보면 수도원 사이 혹은 성직을 둘러싼 성직자 사이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드의 라틴어 석의에서 언급되는 찬미가와 라틴어 수서본에 첨가된 「캐드먼의 찬미가」 사이에는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비드의 라틴

어 『영국민의 교회사』에 첨가된 고대영어 『캐드먼의 찬미가』를 수록하고 있는
수서본은 다음과 같다⁸⁾.

(1)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the Moore MS). 8세기(737) MS. 고대영
어 찬미가는 11-12세기에 다른 필경사에 의해 첨가되었다는 견해와 동일한 필경
사의 서체로 간주하여 8세기로 보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2) Leningrad Public Library. 8세기(746)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앵글로
아이리시 미니스큐(Anglo Irish minuscules)체로 기록되어있다.

공히 Moore MS와 Leningrad MS에 있는 『캐드먼의 찬미가』는 7세기 말과
8세기 초엽의 고대영어 형태를 지니고 있다.

(3) Dijon Public Library. 12세기

(4) Paris, Cod. Lat. 5237, fol. 72. 15세기 초엽

위 4개의 수서본의 차이는 철자에서 두드러지는데 예를 들면 다양한 변어의
사용이 그것이다. 5행의 *eordu* (Dijon and Paris), *aelda* (Moore and Leningrad),
eorðe for *ylða*, *gehwaes* for *gehwylic*, *teode* for *tida*, *on folden* for *on foldum*,
metudaes, *metuda*, *metuudaes*, *maecti*, *mehti*, *mechti*가 사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변어의 사용에 있어 노샘버리아 판과 웨스트 색슨 판은 상당한 차
이를 두고 있다.

Nu we sculan herian heofonrices weard
.....(노샘버리아 판본에 들어 있는 내용의 2행이 없음)
wurc wuldorfaeder, swa he wundra gehwilec,
eccc drihten, ord astealde;

8) 『캐드먼의 찬미가』를 노샘버리아 형태의 고대영어로 수록(페이지 가장 자리에 첨가됨)
하고 있는 비드의 라틴어 『영국민의 교회사』 4권이 있으며, 나중 형태의 『캐드먼의
찬미가』를 수록하고 있는 또 다른 라틴어 『영국민의 교회사』 7권이 있으며, 고대영
어로 번역된 『영국민의 교회사』 5권에도 『캐드먼의 찬미가』가 전해진다.

he aereſt geſceop ylda bearnum
 heofon to hrofe, halig ſcyppend,
 middangeard mancynnes weard;
 ece drihten aefter tida
 firum on foldum, frea aelmyhtig.
 (West Saxon version, MS Hatton, 43)

노섬버리아 판의 2행에 해당하는 구절 “Metudaes maecti end his modgidanc” (창조주의 무한한 힘을, 그분 의중의 지혜로우심을)이 웨스트 색슨 판에는 빠져있다. 두 판본은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변어의 사용에 있어 *Metud*를 제외하고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웨스트 색슨 판과 노섬버리아 판은 공통된 변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웨스트 색슨 판은 노섬 버리아 판에 들어 있는 *Metud* (2-a)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창조주를 지칭하는 변어가 이미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탈락은 시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노섬버리아 판의 *Metud*는 웨스트 색슨 판에서 언급되는 창조주의 다른 변어 (1) *Uard* “Ward” (1-b), (3) *-fadur* “Father” (3-a), (4) *Dryctin* “Lord” (4-a) (5) *Scepen* “Creator” (6-b) (6) *Frea* “Ruler” (9-b) 등과 의미에서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다. *Metud*는 고대영어 *metan* ‘measure’에서 파생하여 하나님의 속성 중 ‘무엇(아마도 양심)을 재는 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미론적 차별성을 고려하면 *metud*를 사용하지 않은 웨스트 색슨 판의 필사자의 의도는 노섬버리아 판의 필사자의 의도와 사뭇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캐드먼의 찬미가』는 비드의 라틴어 석의 부분이 나중에 번역된 것으로 간주된다(Plummer II. 389). 이는 오늘날 전해지는 고대영어 『캐드먼의 찬미가』는 캐드먼이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라틴어 석의는 엄격한 산문의 형태이고 고대영어 찬미가는 엄격한 운문의 형태이며 또한 내용에 있어 핵심부분이 빠져있거나 첨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캐드먼과 관련된 일화 자체가 모두 허구라는 극단적인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Palgrave 341).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찬미가의 가장 오래된 형태가 실려 있는 무어 수서본(Moore MS)의 작성 시기가 비드가 활약한 시기와 동시대인 점을 고려하면 논리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Smith 12).

비드가 전하는 석의는 분명히 이미 존재하는 ‘시(노래)’ 혹은 구전 문학의 형태 혹은 글(?)로 이미 존재하는 어떤 형태의 찬미가에 근거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수사학을 비롯한 어휘조합에 정통한 비드가 산문형태의 석의를 남긴 점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들게 된다. 비드 자신이 밝힌 바에 의하면 비드는 운율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했고 자신이 습득한 이론을 바탕으로 성가와 경구에 운율을 적용할 경지에 다다른 이론과 실재를 겸한 탁월한 운율전문가로 간주 된다.

성 쿠쓰버트의 삶을 처음에 영웅보격⁹⁾으로 썼다가 얼마 후 산문체로 옮겨 적었다. 성가(聖歌)를 다양한 리듬으로 바꿨다.....경구(警句)를 영웅보격으로 바꿨다. 운율에 관한 책을 집필하였고.....

Pæs halgan fæder lif ond muneces somed ond bisceopes Sce
Cupbertes ærest eroico metere ond æfter fæce gerædeword ic awrat.
Boc epigrammatum eroico metre. Be gecynde wisana ond be tydum
sindrie bec. Boc de metrica arte.... (Miller 484)

이러한 지식과 실제 적용능력을 지닌 비드가 찬미가의 운율을 라틴어로 살릴 수 없었다면 고대영어 운율로 남길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남게 된다. 비드 자신이 남긴 글을 살펴보면 캐드먼이 남긴 찬미가는 분명 운문형태로 읊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운문과 산문 사이에 존재하는 어휘 및 운율의 사용에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은 캐드먼이 그의 꿈속에서 노래했던 실제 내용(말)이 아닌 전반적인 의미

9) 영시에서 흔히 쓰이는 약강(弱強) 오보격(五步格)을 의미한다.

를 전한 것이다. 이는 아무리 훌륭한 기교를 지닌 역자라 할지라도 운율에 들어 있는 아름다움과 품위를 잃지 않고 원래의 의미를 지닌 채 다른 언어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This is the general sense, but not the actual words that Caedmon **sang** in his dream; for verses, however masterly, cannot be translated literally from one language into another without losing much of their beauty and dignity. (Leo 223) ¹⁰⁾

캐드먼이 남긴 찬미가가 노래 형태의 운문으로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운문과 산문 사이의 괴리로 인해 또한 라틴어와 캐드먼이 사용한 고대 노섬버리아 영어와의 차이로 이해 부득이 비드는 산문 형태를 취한 것으로 간주된다. 토착어인 고대영어 사용은 9세기 알프레드 대왕의 토착어 강화를 위한 고대영어 공교육 선포와 함께 고대영어 사용이 보편화되기 시작한다. 알프레드 대왕(Alfred the Great, 849-99)의 공교육 선포 1세기 전에 활약했던 비드는 당시 라틴어 글자 문명이 자리를 잡은 노섬버리아의 수도원의 전통에 따라 토착어인 고대영어에 별다른 필요성을 의식하지 않고 라틴어로 글을 남기게 되었을 것이다.

비드는 자신이 전해들은 운문 형태인 캐드먼의 찬미가를 라틴어 산문으로 풀어쓰는 과정에서 본래의 내용을 유지하며 어휘선택상의 유연성을 가했음을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라틴어 석의와 고대영어 찬미가 사이에 존재하는 내용의 차이는 캐드먼이 불렀다는 찬미가의 원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비드는 그의 라틴어로 쓰인 『영국 교회사』에서 그가 전해들은 캐드먼의 찬미가를 다음과 같이 나뉘대로 풀이하여 전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을 만드신 그 분을 찬양하자. 힘의 위엄과 의중의 지혜로

10) 밀러(Miller)의 고대영어 판에 없는 부분이므로 레오(Leo)의 현대영어 번역으로 대체함.

우심을 지닌 주님을, 세상의 수호자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자. 모든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분을 찬양하자. 영원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어떻게 처음 인간을 위해 지붕삼아 하늘을 만드시고, 그런 다음 인간의 거처를 위해 중간 땅을 지으신 것을 찬양하자.¹¹⁾

비드師는 어거스틴의 시 이론에 입각하여 다양한 ‘의미구조(sentence structure, *schemata*)’ 및 ‘언어의 수사학(*figure of speech, tropes*)’적 방법에 관한 정밀한 분석을 가하며 성경의 비유적 해석에 네 가지 분류를 설정할 만큼 해박한 성경 주석가이자 문헌 학자였으므로 그가 라틴어로 풀이한 찬미가의 석의 부분 역시 이러한 엄격한 기독교 성경 해석의 전통에 입각하여 기술하였을 것이다.¹²⁾

라틴 석의에 있는 핵심어와 이에 상응하는 고대영어는 매우 정교한 1대1 대응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erram- middungeard, foldu (earth), creauit-scop (create), tiadae, cum sit aeternus deus- eci dryctin (eternal Lord)* 는 그 예에 해당된다. 이러한 정교한 일대일 대응은 고대영어를 사용하는 필경사가 비드의 석의 부분을 바탕으로 고대영어로 된 찬미가를 남겼다는 가설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비드의 라틴어 석의 부분에 없는 내용이 고대영어 찬미가에 첨가되어있기 때문에 라틴어 석의에 입각한 번역설은 논리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노샘버리아 판의 2행에 해당하는 구절 “Metudaes maecti” (재는 자(창조주)의 무한한 힘)가 비드의 라틴어 석의와 웨스트 색슨 판에는 빠져있다. 하나님

11) 이 부분의 라틴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Nunc laudare debemus auctorem regni caelestis, potentiam Creatoris et consilium illius, facta Patris gloriae. Quomodo ille, cum sit aeternus Deus, omnium miraculorum auctor extitit, qui primo filiis hominum caelum pro culmine tecti, dehinc terram custos humani generis omnipotens creauit. (Plummer 259)

12) 비드는 성경의 구문 ‘예루살렘아 여호아를 찬송할찌어다’(시편 147:12)을 네 가지 비유적 해석을 적용하여 풀이하고 있다. 예루살렘은 (1)역사적 해석에 따르면 ‘지상의 도시들’을 의미하며 (2)상징적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의 교회’를 의미하며 (3)비유적 해석에 따르면 ‘축복 받은 영혼’을 의미하며 (4)신비적 해석에 따르면 ‘천국’을 의미한다(Kendall 58).

의 다양한 속성을 지칭하는 변어가 원래의 캐드먼의 찬미가에 언급되었다면 비드가 이를 간과할 리가 없을 것이다. 노샘버리아 판본 *Metud*는 하나님의 속성 중 ‘(무엇)을 재는 자’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운율 및 변어의 작시법인 외형의 조화와 함께 신학적 해석에 있어서도 심대한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신학자요 어휘 연구가인 비드가 이러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통상 사용되는 하나님의 별칭인 ‘주님’을 사용한 것은 캐드먼이 읊었던 원래 찬미가에 ‘재는 자’의 의미를 지닌 하나님의 별칭이 없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핵심어를 둘러싼 판본 사이의 의미론적 차이는 다음의 예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샘버리아 판과 웨스트 색슨 판에 있는 다음의 예문이 비드의 라틴어 석의에는 빠져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 *eci Dryctin or astelidae.* (Moore MS 8세기)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시작을 놓으실 때

2) *ece drihten, ord astealde;* (West Saxon MS)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시작을 놓으실 때

고대영어로 기입된 노샘버리아 판 『캐드먼의 찬미가』의 4행에 언급된 창조 행위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언급되는 창조 행위와 일치하는데 앞서 II. iii에서 논의한 바대로 의미론적 해석과 신학적 교리면에서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이에 관한 신학적 해석은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이처럼 복잡하고 난해한 신학적 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 창세기 시작 부분을 암시하는 고대영어 찬미가 4행이 비드의 라틴어 석의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많은 의문점을 남기게 된다. 만일 캐드먼이 처음 읊었다는 찬미가(즉, 비드가 전해 들었거나 직접 경험한 노래)가 고대영어 찬미가와 일치 한다면 당대의 제일가는 신학자요 문법학자 이며 성경주석가였던 비드가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칠 리가 없을 것이다. 캐드먼이 읊었다는 찬미가의 원래 내용과 저자를 둘러싼 몇 가지 가

설이 가능할 것이다. 1) 운율의 묘미는 상실 했지만 비드가 전하는 찬미가의 내용이 캐드먼이 원래 읊었던 찬미가라는 가설, 2) 캐드먼이 읊었던 찬미가는 후대의 고대영어 내용과 일치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비드가 약술했다는 가설, 3) 고대영어로 전해지는 찬미가(노썸버리아 판 등)가 캐드먼이 읊었다는 찬미가라는 가설, 4) 비드가 전하는 찬미가가 원래 캐드먼이 읊었던 찬미가인데 후대의 필경사-고대영어 작시법과 신학적 교리에 정통한 필경사들이 비드가 전하는 캐드먼의 찬미가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터득한 시적 기법과 창세기를 둘러싼 초기 교부 신학자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내용의 풍부함과 운율의 묘미를 더했다는 가설이다.

이 중 몇 개의 가설은 캐드먼에 관한 일화를 전하는 비드의 학문적 배경을 살펴보면 제외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영국민의 교회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비드는 운율에 관한 저서 외에 기독교 절기, 다양한 성경 해석 및 주석, 성자 열전, 성 어거스틴의 저서 정리 및 편집, 사물의 본성과 시간에 관한 저서, 문법 특히 철자법에 관한 저서 및 수사학과 문체에 관한 저술에 이르기까지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겸비하고 있었다(Miller 480-44). 이러한 세심하고 정교한 성경학자가 핵심 내용을 빠뜨린다거나 약술(略述) 형태를 취한다거나 혹은 오역 등의 실수를 범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 어휘를 다루는 비드의 학문적 정교함은 그의 말에서도 입증된다.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뿐더러 일부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잘못 수정된 순교자 성 아나스타시우스의 삶과 수난에 대한 책을 나는 가능한 올바르게 교정하였다.

Lifes boc ond þrowunge Sce Anastase martyr, sio wæs yfle of Grecese on Læden gehwyrfed ond gyt wyrs from sumum ungetyдум geryhted, swa swa ic mihte, ic to ondgyte geryhte. (Miller 484)

특히 성경해석과 주석 그리고 수사학과 문체에 관한 탐구를 필생의 업으로

삼았던 비드가 성경 해석상의 핵심쟁점을 품고 있는 고대영어 찬미가의 4행이 원래 캐드먼이 읊었던 찬미가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결코 빠뜨리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비드는 자신이 접한 캐드먼의 원래 찬미가를 그대로 라틴어 석의로 풀어서 기록했을 것이다. 또한 후대의 필경사들은 비드가 전하는 캐드먼의 찬미가가 창세기의 창조 부분을 바탕으로 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찬양가라는 본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습득한 시작술과 성경의 창세기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정교한 신학적 교리에 관한 지식을 병행하여 진일보된 찬미가를 남기고자하는 또 다른 시인(scop)의 책무를 염원했을지도 모른다.

IV. 결론

비드는 『영국민의 교회사』에서 캐드먼의 찬미가에 관한 일화를 전하면서 찬미가의 내용을 라틴어 석의 형태로 전하고 있다. 하지만 비드가 전하는 찬미가는 후대에 완성된 고대영어 「캐드먼의 찬미가」와 내용 면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캐드먼이 읊었다는 최초의 찬미가 형태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동시에 찬미가를 둘러싼 원저자에 관한 논의를 가능케 한다. 라틴어 석의와 고대영어 찬미가 사이의 현저한 차이는 초기 교부신학자들이 적용했던 신학적 해석의 적용범주에서 두드러진다. 노샘버리아 판과 웨스트 색슨 판에 들어 있지만 비드의 라틴어 석의에는 빠져있는 구절은 앞에서 논의했듯이 전통적 신학적해석의 관점에서 살펴 볼 때 찬미가의 원래 내용 및 원저자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심대한 차이로 간주된다.

번어의 다양성과 함께 엄격한 두운 작시법을 준수한 고대영어 찬미가는 성경의 창세기 ‘태초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고도의 정교한 신학적 논의를 가능케 하는 반면 비드가 전하는 찬미가는 어휘조합과 내용면에서 다소 단순한 형태를 지닌다. 만약 캐드먼이 읊었다는 최초의 찬미가에 후대의 필사자들이 언급한 내용이 들어있었다면 신학, 문법, 수사학, 성경해석에 정통한 비드가 이를 간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드는 캐드먼이 읊었던 노래 형태의 찬미가를 그대로 라틴어 석의로 풀어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대영어 운율을 라틴어 운율로 살리는 데 한계를 느껴 산문형태의 석의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후대에 완성된 고대영어 찬미가는 비드가 전하는 석의 형태의 찬미가를 바탕으로 고대영어 작시법과 전통적 성경해석 방법에 익숙한 필경사들에 의해 재해석 되어 진일보된 찬미가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주제어: 노섬버리아 판본, 웨스트색슨 판본, 캐드먼의 찬미가, 비드의 『영국민의 교회사』, ‘태초에’

인용 문헌

- Aquinas, Thomas. *Summa Theologiae*. Trans. Thomas Gilby. London: McGraw-Hill, 1964-73.
- Augustine, St. *The Confessions of St Augustine*. Ed. Rex Warner. New York: Penguin Books, 1963.
- Bosworth, Joseph, and T. Northcote Toller, eds. *An Anglo-Saxon Dictionary*. Oxford: Oxford UP, 1882-98.
- Chapman, E. *Saint Augustine's Philosophy of Beauty*. New York: New York UP, 1939.
- Isidore of Seville. *Etymologiae*. Ed. W. Lindsay. Oxford: Oxford UP, 1911.
- Jones, C. W. *An Introduction to Divine and Human Readings*. New York: Columbia UP, 1946.

- Kendall, Calvin B. *The Metrical Grammar of Beowulf*. Cambridge: Cambridge UP, 1991.
- , ed. and trans. *Libri II De Arte Metrica et De Schematibus et Tropis: The Art of Poetry and Rhetoric*. Liverpool: Liverpool UP, 1975.
- Klaeber, Fr., ed. *Beowulf and the fight at Finnsburg*. Boston: Heath, 1950.
- Laistner, M. *Thoughts and Letters in Western Europe, A.D. 500 to 900*. London: University College Press, 1931.
- Leo, Sherley-Price, trans. *A History of the English Church and People*. London: Penguin Books, 1968.
- Lord, Albert B. *The Singer of Tales*. Cambridge: Harvard UP, 1960.
- Magoun, Francis P., Jr. "Oral-formulaic Character of Anglo-Saxon Narrative Poetry." *Speculum* 28 (1953): 446-67.
- . "Bede's Story of Caedmon." *Speculum* 30 (1955): 79-98.
- Miller, Thomas, ed. *The Old English Version of Bede's Ecclesiastical History of the English People*. London: N. Trubner and Co., 1890.
- Milton, John. *Complete Prose Works of John Milton*, vol. 6. Ed. Don M. Wolfe, et al. New Haven: Yale UP, 1973.
- Plummer, C., ed. *Bede's Historia Ecclesiastica*. London: J. M. Dent & Sons, 1952.
- Raby, F. *A History of Secular Latin Poetry in the Middle Ages*. Oxford: Oxford UP, 1934.
- Rand, E. K. *Founders of the Middle Ages*. Cambridge: Cambridge UP, 1941.
- Robinson, Fred C. *Beowulf and the Appositive Style*. Knoxville: U of Tennessee P, 1987.
- . "Two Aspects of Variation in Old English Poetry." *Essays on Style*. Ed. Daniel G. Calder. Berkeley: U California P, 1979. 124-50.
- Rousseau, Phillip. *Basil of Caesare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Shippey, T. A. *Old English Verse*. London: Hutchinson University Library, 1978.

Smith, A. H. *Three Northumbrian Poem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33.

Stenton, F. M. *Anglo-Saxon Engl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47.

Swanton, M. J. *Crisis and Development in Germanic Society 700-800*. Goppinggen: Kummerle Verlag, 1982.

Tardi, D., ed. *Les Epitomae de Virgile de Toulouse*. Paris: Bolvin, 1928.

Wrenn, C. L. *The Poetry of Caedmon*. London: Harrap, 1947.

The Authorship of “Caedmon’s Hymn” in Relation to Old English Composition and Theological Interpretation

Abstract

Dongill Lee

It is assumed that “Caedmon’s Hymn” is composed by Caedmon, who was a shepherd and later became a monk after being endowed with the faculty of composing verse by heavenly grace. In the Latin version of *Historia Ecclesiastica Gentis Anglorum*, Bede, after describing Caedmon’s inspiration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composition of the Hymn, gives a Latin paraphrase of it. In its Old English form, the Hymn is not an integral part of Bede’s *Historia Ecclesiastica Gentis Anglorum*. In such manuscripts as contain it, it is usually added in the margin or at the foot of the appropriate page, or, as in the Moore manuscript, on some other page.

However, Bede’s Latin paraphrase differs from “Caedmon’s Hymn” in Old English in terms of content. Hence some significant questions arise as to the original form of the alleged hymn and the true authorship of Caedmon.

Unlike the Latin paraphrase, the later versions in Old English show that they are composed following the tradition of theological interpretation established by those early Christian exegetes such as Augustine and St Basil.

It is quite unlikely that Bede omitted willingly or mistakenly those key phrases “*eci Dryctin or astelidae*” (the Eternal Lord, established the beginning) and “*ece drihten aefter tida firum on foldum, frea aelmyhtig*” (the eternal Lord, thereafter adorned [or made, created]/ for men on earth, Almighty ruler).

In view of his accuracy and skill as an historian, there can be little doubt that Bede believed the hymn to be Caedmon’s. If he followed his usual

practice, he had it from some trustworthy source, either an eyewitness or some written description made by such an eyewitness at Whitby. We can not therefore doubt that Bede was actually paraphrasing a poem already existent. It is quite probable that the late Old English versions were reconstructed, based on the Caedmon's original hymn, by those who are familiar with the art of Old English composition and the Christian tradition of biblical interpretation initiated by the early Christian exegetes.

Key Words

Northumbrian form, West-Saxon form, “Caedmon's Hymn,” Bede's *Historia Ecclesiastica Gentis Anglorum*, In the Beginning

논문 투고 일자 : 2010. 6. 20.

논문 수정 일자 : 2010. 7. 30.

게재 확정 일자 : 2010. 8. 5.